

(권) (두) (촉) (검)

「농약연구소 잔류량 분석」결과

감귤껍질중 농약잔류 문제안돼

최근 일부에서 감귤껍질에 농약성분이 잔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우(杞憂)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옛날처럼 감귤 껍질을 씹어먹기가 두렵다는 생각마저도 하고 있다.

또 일부 「메스컴」에서도 과피의 농약잔류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서 농약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일말(一抹)의 불안감(不安感)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농약연구소측은 감귤의 껍질에서는 잔류량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서 이같은 우려를 일축(一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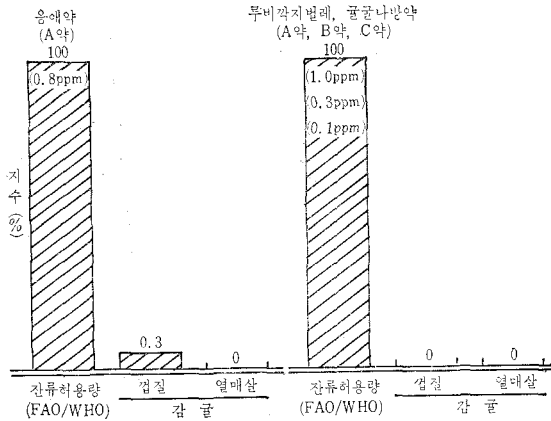
농약연구소는 감귤수확기는 10월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인데 감귤은 수확기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것이 감귤의 재배환경이라고 밝혔다.

또 감귤 수확기 이전에 살포한 농약은 햇빛과 공기를 접하게되면 분해되기마련이고 대부분의 농약이 살포한지 7일내지 15일이 지나면 약효성분이 없어진다 고 덧붙이고 농약병자체가 갈색인것도 햇빛등에 의한



◇ 농약연구소는 감귤껍질중의 농약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귤중 농약함유량)



분해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햇빛에 의한 분해에 농약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농약연구소는 또 감귤중 농약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유기염소계 응애약인 A 약제의 경우 FAO와 WHO에서 정한 잔류허용 기준량의 1/300에 불과하며 유기인계농약은 없으며 과육중에는 전연 농약성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약은 유기합성품(有機合成品)으로서 100°C 이상에서는 분해되어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농약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농약을 등록하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자재검사소, 보사부, 환경청, 내무부, 농약관계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된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문제점이 있는 농약이 있다면 즉각 규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농약연구소의 분석결과로 농약잔류문제는 지나친 걱정에서 나온 기우임이 밝혀졌고 모든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㉞

살포 7 ~ 15일후면 약효성분 소멸돼
감귤의 수확기엔 농약 살포하지 않고